

## 삼국시대

영광지역은 삼국시대의 전개에 따라 백제에 편입된 후 근초고왕대(346~375)인 4세기 후반부터 중앙의 통치력이 미치지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남만南蠻’으로 지칭된 이들 세력들은 공납과 왕후제를 통한 백제의 간접지배 속에서 적어도 2세기에 걸쳐 독자성을 견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5세기 후반에 백제양식과는 다른 계통인 법성면의 월계 장고분長鼓墳이 축조되고,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대형옹관분이 6세기 이후까지 지속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영광 최초의 국가적 행정지명인 ‘무시이군武尸伊郡’은 6세기 중엽에 백제의 방군성제方郡城制의 확립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백제의 5방 중에서 남방의 하부 행정단위로 편제된 14군 44현은 전남의 거의 모든 지역을 포괄하며, 무시이군의 어원語源은 해수가 깊이 유입된 지역을 시사하는 의미로, 영광읍에 치소治所를 두고 주변지역인 고창의 상노현上老縣(무장면)·모량부리현毛良夫里縣(고창읍)·송미지현松彌知縣(의장면)을 관할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의 영산면과 백수읍, 군남면에는 각각 고록지현古祿只縣과 아로현阿老縣이 설치되어 아차산군阿次山郡에 편제되어 있었으므로 영광의 연혁은 주요 지역인 무시이군과 함께 그 일부가 편제된 아차산군을 포괄한다. 이러한 편제는 백제의 중앙 통치력이 영광에 파급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백수읍 금마동과 법성면 성촌마을의 백제식 석실분이 조성된 배경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당시 백제는 각 지방에 지방관을 모두 파견하지 못했으며, 석실분의 주인공이 토착세력가였으므로 일정 정도 토착적 전통기반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백제사의 전개에 있어서 영광은 불교 도래지로서의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큰 지역에 속한다. 백제의 불교는 침류왕 원년(384)에 동진東晉을 통해 인도출신 승려 마라난타가 전파하여 공인되었다. 물론 『삼국유사三國遺事』 마라난타조 등에 입국 장소와 도래지가 자세하지 않고, 백제불교가 중앙집권국가 발전의 필요에 따라 수용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영광 법성포와 백수 구수리 일대에는 지금까지 마라난타가 아미타불상을 모시고 도착했다는 등 다수의 구전이 전해 내려온다. 또한 불감사의 고적기古蹟記는 절의 초창初創이 백제 초기에 이루어진 사실을 전해주고 있으며, 나주 불회사佛會寺 대법당과 대양문의 중건 상량문에는 마라난타가 초창했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여러 구전 자료는 일정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관찬사서官撰史書 등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 보완해 주는 내용으로 적극 활용된다. 더구나 백제불교의 도래지가 영광이었고, 불교가 창시된 인도의 스님이 직접 전파 포교했다는 점에서 그 철학 수준이 고구려·신라보다 매우 높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장차 연구 과제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